

기고

119구급차, 꼭 필요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 진도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차가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응급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하는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최근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합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비응급 시에는 119 상황실에서 상담 가능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도소방서 소방서장 김재철

바흐의 마태수난곡. 복음서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다룬 종교 음악이다. 1729년 4월 15일 초연되었다. 그 후 까마득히 잊혀졌다. 그러다가 1829년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발굴되고 초연되었다. 멘델스존은 독일의 초기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다. 피아니스트이자 오르가니스트다. 지휘자이기도 했다. 바흐나 멘델스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음악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중·고교 시절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바흐처럼 소신껏 생을 충실히 행하는 것이 참 인생

바흐가 처음부터 대음악가로 추앙받은 것은 아니다. 대음악가 반열에 올라선 것은 사후인 19세기다. 그야말로 100여년이 지난 뒤다. 때문에 생전에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빠졌을 뿐이다. 장인의 정신으로 알아주든 않든 간에, 이게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아닐까.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0여 년 뒤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중의 가슴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감동을 주고 있다.

요즘의 촘촘끼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복장 터져 죽을 일이지도 모르지만, 작금의 세대는 참으로 가관이다. 쫓그만 재능만 있어도 난리다. 안달이다.

타인이 보기엔 그저 꽃내기일 뿐인데도, 감으로 말하면 겨우 6월 초순경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때는 짧은 맛도 제대로 들지 않을 시기다. 그런데도 매우 달다고 우겨대면 될까. 그야말로 공해가 아닐 수 없다.

예술계 쪽만 이러는 것은 아니다. 정치계도, 교육계도, 기타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 정치인들을 봐보라. 참으로 가관이다. 철면피다. 자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이코패스다. 날마다 독살을 난무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이름을 너무도 많이 도용하는 것 같다. 자신의 하찮은 것은 침소봉대해도 타인

의 재능은 아무리 높아도 묻어버린다. 험뜯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갑남을녀도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가장 미움받는 부류들은 정해져 있다. 제멋대로인 사람, 돈 버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사람, 화제가 직장 이야기밖에 없는 사람, 수다스러운 사람 등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잘못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철면피 스타일이다. 반면에 환영받는 사람들은 어떤 쪽인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인생에 적극적인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잘 내

세우지 않는다. 험뜯지도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는다. 인정 해주지 않더라도 일에 몰두한다. 이런 부류의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고쳐나간다.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아한다. "위대한 사람은 평론가가 아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가 뭘 어찌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지적하는 그들이 아니다. 영광은 먼지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자의 몫이다. 앞서면 이길 것이요, 뒤지면 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했다 해도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진 것이다. 경기장 안에서 담대하게 뛰는 것이 인생이다." 미국의 26번째 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한 말이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대학시절에 의사의 강력한 권고도 받았다. 조심조심 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았다. 곰 사냥을 즐기면서도 임신한 곰, 병약한 곰 등을 가려서 했다. 인간적인 면이다. 바흐처럼 소신껏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이다. 주어진 사명감을.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전기화재, 작은 점점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진도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겨울철 증가하는 전기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부하나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전기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체 화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 오래된 멀티탭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등은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고 ▲정격용량을 초과한 전기기기 사용을 피하며 ▲전선이 눌리거나 접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누전차단기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계기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한 번 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김재철 진도소방서장은 "전기화재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며, 가정과 사업장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면 옮겨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홍보담당 소방사 노은서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음력 9월 23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Korea Express.